

[164] 이숙감(李淑)<李朝 ? ~ ? >

李朝 初期의 文臣, 字는 次公, 號는 蒙菴, 楊原, 諡號는 文莊, 本貫은 延安, 判官 末丁의 아들이다. 端宗 2年(1454) 生員으로 文科에 及第, 吏曹參判에 이르렀으며 文名이 높았다. 成宗 16年(1485) 徐臣正 등과 함께 新編東國通鑑을 修撰했다. 世祖가 溫陽에 行幸하였을 때에 扈從하여 그가 지은 溫陽八景題詠(內容 第7編) 第2章 第3節 參照)이 있다. <成宗實錄, 國朝榜目, 國朝寶鑑, 朝鮮 輿勝覽>

[165] 이승소(李承召)<世宗4年(1422)~成宗15年(1484)>

李朝 成宗때의 名臣, 字는 胤保, 號는 三灘, 諡號는 文簡, 本貫은 陽城, 高麗의 侍中 春富의 玄孫이다. 人品이 慎重하고 分明하였다. 世宗 29年(1447)에 文科에 壯元及第하고 三場에 연이어 壯元했다. 成宗때에 佐理功臣에 책록, 陽城君에 被封되고, 버슬은 禮曹判書에 그쳤다. 文章家로 알려졌으며 博識하고 記憶力이 좋아서 禮樂, 兵刑, 陰陽, 律歷, 醫藥, 地理에 모두 도통하였다. 申叔舟, 姜希孟 등과 함께 國朝五禮儀를 편찬하였다. 世朝가 溫陽에 行幸하였을 때에 扈從하여 그가 지은 牙山題詠(內容 第7編 第2章 第3節 參照)이 있다. <國朝人物考, 朝鮮 輿勝覽>

[166] 임원준(任元濬)<世宗5年(1423)~燕山君6年(1500)>

李朝 初期의 文臣, 字는 子深, 號는 四友堂, 諡號는 朝文, 本貫은 川 高麗의 判密直 君 輔의 曾孫이다. 世朝 2年(1456) 文科에 及第, 重試를 거쳐 拔英登俊試에 뽑혔다. 드문 才士로서 일찌기 密陽에 귀양가 있을 때 觀察使가 그의 文章을 試驗해 보고 크게 탄복하여 世宗에게 特赦를 上疏했으며, 世宗은 朝廷에 불러들여 集賢殿撰書에 있게 했다. 明나라 英宗이 復位하자 이를 祝賀하기 위해 表文을 올릴 때 世祖는 元濬을 불렀으나 늦게 들어와 王의 問招를 받은 뒤 遑遽表를 써 올려 칭찬을 받고 容恕되었다. 左參贊을 지낼 때 寧城君 崔恒 등과 經國大典을 편찬하고, 世祖가 친히 지은 醫藥論에 註解를 붙였다. 그후 버슬은 左贊成에 이르렀고 成宗 2年(1471) 佐理功臣의 號를 받고 西海君에 被封됐으나. 中宗反政때 罪를 지어 死刑되었다. 世宗가 溫陽에 行幸하였을 때 扈從하여 그가 지은 溫陽八詠(內容 第7編 第2章 第3節 參照)이 있다. <世祖實錄, 燕山君日記, 課聞 錄, 國朝榜目, 朝鮮 輿勝覽>

[167] 윤자임(尹自任)<李朝 ? ~ ? >

本貫은 新寧, 世宗 14年(1432)에 朴彭年과 同榜에 司馬試를 合格하고 世宗 32年(1450) 文科에 及第하여 官은 掌令에 이르렀다. 버슬을 물러나와 牙山郡 仁面 高湧山아래 金店里에 와서 寓居하였다. <新定牙州誌>

[168] 이승손(李承孫)< ? ~ 世祖 9年(1463)>

李朝 世祖때의 重臣, 字는 引之, 諡號는 成靖, 本貫은 永川, 斗萬의 아들이다. 太宗末에 生員試에 들었고, 世宗 2年(1420) 文科에 及第, 承政院 注書에 任命되고 吏曹正郎을 거쳐 世宗 15年(1433) 大將 崔潤德의 從事官으로 野人李滿住를 치고 돌아와 議政府 舍人으로 있다가 司憲府執義로 任命되어 知刑曹事를 兼했다. 그후 兼知兵曹事, 右副承旨, 都承旨등의 要職을 歷任하고 刑曹判書가 되었다. 大司憲, 禮曹判書, 戶曹判書, 左參贊을 지냈으며, 世祖 9年(1463) 右贊成에 이르러 病死했다. 世祖가 溫陽에 行幸하였을 때에 扈從하여 그가 지은 溫陽溫泉題詠(沸靈泉湧 火德亨)이 있다. <世祖實錄, 國朝榜目,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 輿勝覽>

[169] 정광필(鄭光弼)<世祖8年(1462)~中宗33年(1538)>

朝鮮前期의 文臣, 字는 士勛, 號는 守天, 本貫은 東萊, 左參贊 鄭蘭宗의 아들로 그의 집은 懷德縣 山村에 있었다.

成宗 23年(1492) 文科에 급제하여 弘文 에 등용되고 副提學·吏曹參議를 역임, 燕山君

10年(1504) 甲子士禍에 王을 極諫하다가 牙山에 流配되었다.

1506年 中宗反正으로 副提學에 복직, 禮曹判書·大司憲을 거쳐 中宗 5年(1510) 右參贊으로 全羅道都巡察使가 되어 三浦倭亂을 수습 후 右議政·左議政을 거쳐 領議政에 올랐다.

中宗 14年(1519) 己卯士禍때 趙光祖를 구하려다가 파직되고 그후에 領中樞府事로 他界하였다. 中宗의 廟庭에 配享되고 德의 崇賢書院, 龍宮의 浣潭鄉祠에 祭享되었다. 著書에 「鄭文翼公遺稿」가 있다. <中宗實錄, 海東名臣錄, 陽谷集, 德縣誌>

[170] 윤두수(尹斗壽)<中宗28年(1533)~宣祖34年(1601)>

李朝 宣祖때의 文臣, 字는 子卯, 號는 梧陰, 諡號는 文靖, 本貫은 海平, 軍資監正 忖의 아들이다. 明宗 10年(1555) 庭試에 壯元及第, 明宗 13年(1558) 大科에 及第, 銓郎으로 權臣 李樛이 아들을 천거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다가 드디어 誣告당하여 罷免됐으나 李樛이 별안간 失脚되자 修撰으로 復職했다. 宣祖때 吏·工·刑·戶曹의 參議를 거쳐 大司諫, 大司憲에 이르러 宣祖 11年(1578) 李銖의 獄事에 連坐되어 아우 根壽와 함께 罷職당했으나 大司諫 金繼輝의 奉請으로 復職되었다.

연안부사로 나아가 1580年 凶年에 힘써 百姓을 도와 御史로 부터 表를 받고 表彰되었다. 漢城左尹, 五衛副摠官, 刑曹參判, 全羅道觀察使를 거쳐 1590年 平安道觀察使때 宗系辨誣의 功으로 光國功臣 2等으로 策錄되고 海原君에 被封, 刑曹判書를 거쳐 大司憲때 憲論에 連坐되어 會寧에 流配되었다가 特命으로 海州에 옮겨졌다. 1592年 壬辰倭亂때에 宣祖에게 特히 容恕받고 官爵이 復舊되어 王을 모시고 西行, 開城에 이르러 御營大將이 되고 별안간 右議政에 올라 平壤에 到着한 후 左議政이 되어 君國의 政務를 지체없이 處理했다. 倭軍이 平壤에 肉薄해 오매 여러 臣下들이 咸興으로 옮기자 하고 王도 뜻이 같았으나 斗壽는 寧邊이 防禦에 咸興보다 낫다하면서 끝내 뜻을 貫徹시켰다. 후에 咸興이 陷落되고 이어 두 王子가 포박되자 그제야 그의 先見之明에 모두들 歎服했다. 1594年 世子를 모시고 南下하여 三道體察使를 兼職, 1595年判 中樞府事로 中殿을 모시고 海州에 다녀왔으며, 1595年 다시 左議政, 1599年 領議政에 올랐으나 論難당하여 드디어 辭任하고 南波에서 餘生을 마쳤다. 그는 特히 詩文에 能하여 當代에 有名했다. 그가 지은 牙山客舍題詠(內容 第7編 第2章 第2節 參照)이 있다 <燃○室記述, 國朝人物考等>

[171] 이후생(李原生)<李朝 ? ~ ? >

李朝를 섬기어 右議政을 지낸 崑의 孫子로서 牙山人이다. 벼슬은 弘文館 正字를 지냈다 <朝鮮 輿勝覽>

[172] 이석번(李碩蕃)<李朝 ? ~ ? >

李朝를 섬기어 左議政을 지낸 崑의 孫子로서 牙山人이다. 中宗朝에 靖國功臣으로 策錄되고 牙城君에 封해졌다. 벼슬은 工曹判書에 이르고 錄卷이 있다. <朝鮮 輿勝覽>

[173] 홍우기(洪宇紀)<李朝 ? ~ ? >

本貫은 南陽, 晩全의 孫子인데 벼슬은 判決事를 지냈다. <新定牙州誌>

[174] 홍우원(洪宇遠)<李朝 ? ~ ? >

字는 君徵, 號는 南波, 晩全의 孫子, 宇定의 아우이다. 일찌기 安城에 移居하였다. 篤志力學하여 文科에 及第하고 淸要한 官職을 歷任하였으며 自身을 規律함에 甚히 애를 썼다. 벼슬은 吏曹判書에 이르렀으며 安城사람들이 書院을 세웠다. <新定牙州誌>

[175] 신 흥(申欽)<明宗 21(1566)~仁祖 6年(1628)>

李朝英祖때의 領議政, 字는 敬叔, 號는 玄軒, 象村, 玄翁, 諡號는 文貞, 本貫은 平山, 開城都事 承緒의 아들이다. 宣祖 19年(1586) 文科에 及第, 禮曹判書, 左, 右議政등을 거쳐 仁祖 5年(1627) 領議政에 이르렀다. 아들 翊聖이 宣祖의 딸 貞淑옹주에 장가들어 東陽尉가 되었으며 光海君 5年(1613) 永昌大君의 獄死가 일어 났을때 宣祖의 遺敎七臣중의 한사람으로

官職에서 쫓겨나고 뒤에 春川에 귀양갔다. 仁祖反正이 되자 右議政에 오르고 大提學을 兼하였다. 象緯, 律法, 算數, 醫卜에 관한 서적까지 통했으며 六經을 바탕으로 하는 文章이 또한 뛰어나 月沙, 澤堂, ○谷과 더불어 四文章家라 불리워지며, 글씨도 잘 썼고 李恒福등과 함께 宣祖實錄의 편찬사업에 參加하였다. 著書로 象村集이 있다. 일찌기 牙山縣監으로 있을때에 惠政이 있었고 그 當時 牙州客館題詠(內容第7編 第2章 第3節 參照)을 지었다 <國朝人物考, 朝鮮 輿勝覽>

[176] 이안눌(李安訥)<宣祖4年(1571)~仁祖15年(1637)>

李朝仁祖때의 大臣 字는 子敏, 號는 東岳, 諡號는 文惠, 本貫은 德水, 苻의 后裔이다. 宣祖 32年(1599) 文科에 2等으로 及第, 刑, 戶, 禮 3曹 正郎을 歷任하고 禮曹正郎이 되어 書狀官으로 進賀使 鄭光積과 같이 明나라에 다녀와 成均 直講이 되었다. 安東府使, 戶曹參議, 忠淸監司를 거쳐 江華府尹이 되어 幸都建設에 힘썼고, 仁祖反正때 禮曹參判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일찌기 特進官으로 王을 모시고 朝廷의 是非가 밝지 못하고 賞罰이 公正치 못함을 極言하여 高官들을 攻駁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特進官을 그만 두었으며 淸나라가 查問하러 왔을 때 失言한 일로 北邊에 귀양갔다. 丁卯胡亂때 容恕되어 王의 避難所인 江都에 이르러 江都留守가 되었다가 刑曹參判, 咸鏡道觀察使를 歷任하고 使臣으로 明나라에 건너가 章陵의 追典을 泰請하여 封典의 일을 이룩하고 돌아와 正憲大夫에 오르고 土地를 賞으로 받았다. 禮曹判書로 藝文 提學을 겸하였고, 忠淸監司가 되었다가 事件으로 罷免되었다. 當時 朝廷에서 淸廉勤勉한 官吏 5名을 뽑는데 들어 崇祿大夫의 加資를 받고 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에 任命되었는데 1636年 겨울 丙子胡亂으로 王을 모시고 南漢山城에 다녀와서 죽으니 左贊成을 追贈하였다. 儉素하고 詩文에 능했으며 弟子중에 李植과 같은 名儒가 많았다. 忠淸監司로 있을때 그가 지은 牙州客 題詠(內容第7編 第2章 第3節 參照)이 있다. <宣祖實錄,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等>

[177] 김 찬(金瓚)<李朝 ? ~ ? >

號는 訥菴, 本貫은 安東, 諡號는 孝獻, 壬辰倭亂때에 都憲으로 서울을 버리고 떠나지 말기를 힘써 諫하며 殿庭에서 號哭하였고, 드디어 御駕를 扈衛하였다. 全羅道檢事가 되어 貢津倉에 있는 食을 漕運하여 明나라 援兵을 먹였다. 官은 吏曹判書에 이르렀다. <新定牙州誌>

[178] 임홍망(任弘望)<仁祖13年(1635)~肅宗41年(1715)>

李朝 肅宗때의 文臣, 字는 德章, 號는 竹室, 本貫은 川, 生員 晩의 아들이다. 顯宗 7年(1666) 文科에 及第, 正言으로 宋時烈的 禮論事件에 대하여 積極 옹호하다가 鏡城判官에 좌천되었고 다시 薰人들의 배척을 받고 蔚使로 淸나라에 다녀와 承旨가 되었으나 政治가 날로 부패함을 보고 벼슬에서 떠나 故鄉에 돌아갔다. 肅宗 15年(1689) 다시 慶州府尹이 되어 走任도중에 栗谷, 牛溪가 文廟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표를 내었으나 許諾되지 않았고, 王妃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후에 刑曹參判을 거쳐 知中樞府使가 되어 耆社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正直하고 淸白하여 여러번 州郡을 다스렸으나 조금도 저축함이 없고 60年동안 말안장 하나를 使用하였다. 文筆에 能하고 經史에 精通하여 當代에 이름을 떨쳤다. 墓所는 牙山 獨亭村뒤에 있는데 漢湖 金元行이 撰한 碑 이 있다. <肅齋集, 朝鮮 輿勝覽>

[179] 남용익(南龍翼)<仁祖6年(1628)~肅宗18年(1692)>

李朝肅宗때의 吏曹判書, 字는 雲卿, 號는 壹谷, 諡號는 文憲, 本貫은 宣寧, 府使得朋의 아들이다. 仁祖 26年(1648)에 文科에 及第, 孝宗때에 三司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했다. 孝宗6年(1655)에 通信使從事로 日本에 다녀온후 左贊參, 藝文 提學에 이르러 肅宗 9年(1683)에 禮曹判書를 兼任하고, 1687년에 兩 大提學, 이어 吏曹判書가 되었다. 朝廷에 나가기를 40餘年 동안 한번도 실수가 없었다. 文章이 能하고 筆法이 훌륭했다. 그가 엮은 詩集(箕雅)은 有名한데 그 詩集에 牙州客 題詠(內容 第7編, 第2章, 第3節 參照)이 있다. <國朝人物考... 等>

[180] 임정신(任 臣)<李朝 ? ~ ? >

字는 調元, 號는 退休, 本貫은 川, 牙山縣監 柱의 아들이다. 仁宗朝에 文科에 及第하여 翰林과 舍人을 歷任하였고 湖堂에 이르렀다. 直節이 있었고 乙巳士禍의 名賢이 되었다 <朝鮮 輿勝覽>

[181] 정광한(鄭光漢)<肅宗46年(1720)~正祖4年(1780)>

李朝英祖때의 文臣, 字는 良甫, 初字는 秀夫, 本貫은 溫陽, 佐郎 壽淵의 아들이다. 英祖 30年(1754) 漢陽道文科에 及第, 翰苑에 들어 갔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禮曹判書에 이르렀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公事를 處理함에 公正하였으므로 죽은후 사람들의 추모를 받았다. <正祖實錄, 目省錄, 承政院日記, 耳溪集>

[182] 정창순(鄭昌順)<英祖 3年(1727) ~ ? >

李朝正祖때의 文臣, 字는 祈天, 號는 四於, 本貫은 溫陽, 北窓 의 아들이다. 英祖 33年(1757) 文科에 及第, 英祖 38年(1762)과 英祖 42年(1766) 正言일때 귀양간 일이 있다. 正祖가 卽位하자 告訃兼請諡承襲副使가 되어 청나라로 건너가는 도중에 管餉銀 천냥을 분실한 사건으로 一行과 함께 罷職되었다. 正祖 1年(1777) 大司憲이 되어 朝廷을 清新할 것, 財政의 節約, 紀綱의 確立, 言路를 열어 놓을 것, 現官의 待遇改善, 人材를 養成할 것 등의 疏를 올리니 王이 기꺼이 받아들여 鹿皮를 하사하였다. 咸鏡監司가 되어 被害地직 結을 임으로 分配한 사건으로 罷免되었다. 후에 慶尙監司를 거쳐 宣惠提調가 되어 量田의 필요를 上疏하여 一部 施行케 하였으며, 司直을 거쳐 判書에 이르러 辭退하였다가 다시 判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일찌기 王命을 받아 同文○考를 편집하였다. <正祖實錄>

[183] 정민시(鄭民始)<李朝 ? ~正祖 24年(1800)>

李朝正祖때의 文臣, 諡號는 忠獻, 本貫은 溫陽, 鄭順朋의 後孫이다. 英朝 49年(1773) 文科에 及第, 누진하여 正祖初에 弘文館副提學, 奎章閣直提學등을 歷任, 宣惠廳堂上에 이르러 京外의 船隻을 均廳에 예속시켜 免稅나 納稅를 管掌하기를 建議했다. 吏曹參判으로 正卿에 特進하여 禮曹判書, 工曹判書를 歷任하고 平安監司로 나갔다가 다시 福曹判書로 들어왔다. 咸鏡道觀察使가 되어 德原府赤田寺湧珠里의 옛터에 碑를 세울것을 奏請하여 곧 實施하였으며 다시 奎章閣提學, 戶曹判書, 全羅道觀察使를 歷任하고 壯勇營 提調가 되어 太僕에 속하였던 馬場面目里를 拜峰鎮에 예속케 하였으며, 宣惠廳提調로 轉任 三南樂材의 進上을 반감시키게 하고 또 湖南備米를 京北(서울)에 불이게 하고 己酉貿米, 別檢米를 賑廳에 불이게 하는 것을 奏請하여 實施하였다. 右贊成이 되어 牧馬事業에 대하여 먼저 암컷을 飼育하여 良馬를 얻는데 置重할 것을 主張하여 北關牝馬의 輸入禁止規定을 解除하도록 奏請하였다. 다시 行司直, 摠武使등을 거쳐 右賓客에 이르러 죽었다. 死後에 右議政에 追贈되었고 狀啓를 기다리지 않고 諡號가 내려졌으며 權威가 當代에 떨쳤다. 純祖 1年(1801) 事件으로 官職의 추탈을 당했다가 후에 아들 性愚가 그의 伸冤을 上疏하여 다시 복귀되었다.(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184] 홍욱호(洪旭浩)<英祖庚申年~純祖丁丑年>

字는 照麟, 號는 良九翁, 判書 洪重徵의 孫, 縣監純輔의 子로 英祖庚申年 7月 24日 漢城府明禮坊에서 出生하였다. 幼時부터 學業을 研磨함이 他에 比할바 아니었으나 官界에 進出할 意思를 버리고 牙山郡 排芳面 回龍里 梧洞村에서 農園을 造成하고 造林, 花草, 대나무 가꾸기등 農事를 돌보며 學問研究에 熱中하던중 人品과 學問의 特出함이 純祖大王께 알려져 임금의 特命으로 講陵參奉, 司圃直長, 尙衣直長, 司僕主夫, 京北主簿를 거쳐 陽知縣監, 金吾郎, 掌樂主夫, 東部令, 陽川縣監, 禁府都事, 戶曹參議, 朔寧郡守, 富平府使, 戶曹參判兼 知義禁府事, 都摠府副摠官등을 歷任했다. 年老함과 無能함을 理由로 數次亂退할 것을 上申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으시고 數年後에 嘉義大夫로 品階을 높이고 官界에서 물러나게 하

였다. 그는 一生을 통하여 淸素함을 좋아하였고 營産하는 子孫이 있을까 警戒하였다. 醫術도 研究한바 있어 國王의 難治病을 完決케 한 功으로 많은 賞品을 下賜받은바 있으나 全部를 部下에게 分配하여 주었으며, 死後에 집에는 穀食 한섬이 없는 淸貧한 生活로 一貫하였다. 墓所는 牙山郡 排芳面回龍里 上梧洞에 있다. <純祖實錄... 等>

[185] 이조망(李朝望)<李朝 ? ~ ? >

字는 望之, 本貫延安, 治溪 益泰의 孫子이다. 英祖朝에 文科에 及第하여 벼슬이 正言에 이르렀다. 墓所는 牙山郡 屯浦面 新頂리에 있다. <朝鮮 輿勝覽>